

색으로 마음을 채우다, 예술로 마음을 나누다!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장애인 특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월 2일(토) 오후 2시부터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2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 체험프로그램 '나를 색으로 채우는 시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감정과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예술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주는 힐링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체험은 현재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에서 전시 중인 김우아 작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작가의 전시 해설

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초벌 도자기 접시에 나만의 색과 형상을 표현하고, 도자기 전용 물감과 도구를 활용해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완성된 작품은 가마 소성 후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화순 지역 예술기획 전문업체인 오로시프로젝트와 협업하여 장애인의 참여를 한층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참여자의 특성에 맞춘 보조 인력도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네이버에서 '운주사문화관'을 검색해 플레이스를 통해 예약하거나, 대표번호 061-379-5893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강삼영 화순군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예술을 통한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준권 화백과 함께하는 작은 예술가 판화버스킹 참여자 모집

기억을 찍고 마음을 새기는 판화의 예술적 매력 경험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오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5 김준권 화백과 함께하는 작은 예술가들의 판화 버스킹'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아동들의 예술적 감성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기획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작은 예술가들은 ▲전통 수묵·채묵 기법을 활용한 목판화 제작 ▲나만의 목판화 창작 ▲합동작품 <판화놀이> ▲바다그림 그리기 <우리들 세상> 등에 참여하며, 손 끝에서 시작된 창작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 속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고 서로의 세계를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체험은 영암 출신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판화 작가인 김준권 화백이 직접 지도하며 작은 예술가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김 화백은 전통 판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온 예술가로, 미래의 예술가들과 소통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과 예술의 깊



이를 나눌 예정이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사업팀 조소영 PD는 "이번 판화 버스킹을 통해 어린이들이 영암의 자원과 삶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할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작업하며 공동체 예술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김준권 화백과의 만남은 예술이라는 놀이터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북구, 무더운 여름 도서관으로 피서를... 구립도서관 '여름 특별 프로그램' 운영

5개 구립도서관 여름 맞이 초등학생 독서 교실·일반 주민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5개 구립도서관(신용·양산·운암·일곡·중흥)에서 여름 맞이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및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초등학생 대상 '여름 독서교실'과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는 '여름 단기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여름 독서교실'에서는 ▲사회 ▲예술(영화) ▲음식문화 ▲별자리 ▲과학 등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와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제공한다.

신용도서관에서는 'K-사회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주제로 하브루타 토론과 미니 법정 놀이 등을, 양산도서관은 명화 감상, 자화상 그리기 등으로 구성된 '명화 속 세계로 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암도서관은 음식에 담긴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듣고 직접 요리도 체험하는 '편의점을 떠난 세계가 보인다!'를, 일곡도서관에서는 '별별 이야기, 별별 여행'을 주제로 별자리에 대한 강의와 별자리 키링·무드등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다.

중흥도서관에서는 생활 속 과학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와 연관된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는 '신나는 과학여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 독서교실' 종료 후에는 도서관별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여름 단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별 원데이 클래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주민

들의 연령별 수요에 맞는 레진 공예·사주명리·다도 체험·모기 기피제 만들기 등 총 2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고 참여자는 15일부터 북구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프로그램별 선착순 모집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5개 구립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따뜻한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친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책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국립남도국악원, 26일 전주해금연주단 초청 '해금의 꿈' 공연

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연 '해금의 꿈' 남도소리는 해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교와 음색 등으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대해금(1960년 개량된 해금의 한 종류)과 저음해금(전통해금보다 음역대가 낮고 굵은 음색을 지닌 개량악기), 그리고 판소리와와의 합주곡과 창작곡까지 해금의 여러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남도국악원, 26일 전주해금연주단 초청 '해금의 꿈' 공연

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연 '해금의 꿈' 남도소리는 해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교와 음색 등으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대해금(1960년 개량된 해금의 한 종류)과 저음해금(전통해금보다 음역대가 낮고 굵은 음색을 지닌 개량악기), 그리고 판소리와와의 합주곡과 창작곡까지 해금의 여러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국악이 흥다

공연은 대해금과 저음해금, 그리고 11대의 해금이 함께하는 해금 합주곡 '남도굿거리'를 시작으로 소리와 해금이 함께한 '홍타령에 의한 해금독주', 육자배기토리가 지닌 극적인 음악요소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육자배기 토리에 의한 '지음', 해금과 판소리를 함께하는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까지 선보인다.

진도/오재명 기자



삶과 기억이 예술로 피어나는 연극 '예지몽'

예술의 거리 주민들의 삶... 이달 26일 미로센터 무료 관람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26일 오후 4시 미로센터 4층 미로극장 2관에서 미로 월간공연 '예지몽(예술의 거리에서 지금 바로 꿈꾸자)'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예지몽'은 2025 미로 공연예술사업 일환으로 예술의 거리 주민들의 다채로운 삶을 소재로 한 창작 연극이다. 특히 공연자 '너랑 나랑'이 함께하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간 장소들이 극적으로 재소환되어 관객들에게 예술의 거리를 알리고자 기획됐다.

이번 연극은 마을 공동체의 상징이자 소통의 공간인 평상을 배경으로, 할머니 세 분이 평상에 앉아 일상을 나누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삶의 깊이와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며 가족과 이웃, 세대 간의 연결을 주제로 하여 관객과 따뜻한 감정을 공유하며 유쾌하고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미로센터 알람사항을 통해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로센터(☎062-608-2136)로 문의. /전혜정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금이 있습니다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 (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R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